

西洋服飾에 나타난 貞淑性에 관한 研究

—6~12世紀와 17世紀 淸教徒 革命期를 중심으로—

李熙賢 · 金鎮玟*
관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Modesty in Western Costume

Hee-Hyun Lee and Jin-Goo Kim

Department of Home Economic Education, Kwan Dong University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I. 序 論

II. 理論的 背景

III. 時代的 特性과 服飾의 貞淑性

1. 6~12世紀

2. 淸教徒 革命期

I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The study is to analyze modesty of clothing motive of western costume during the 6~12th and 17th pilgrim's revolution period by Flugel's theory. These society of two period maintained the moral and ascetic life under the control christianity and pilgrim. This study utilized terms of Freud's theory on human personality in defining the characteristics of periods. Two periods is to define as Super-ego period.

I. 序 論

보호, 장식, 정숙성으로 대표되는 복식의 착용동기는 다른 학문에서 나타나는 기원적인 면에서의 동기의 의미보다 그 관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심리적인 것이며, 여러 학자들의 동기론 중에서도 Flugel의 착용동기에 관한 이론은 정신분석학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복식의 심리학적인 연구 특히 개개인의 의복착용동기에 관한 심리연구에 있어 중요한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복식사속에서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착용동기를 Flugel의 이론에 의해 조사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조사의 결과를 통해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서 출발한 성격구조이론과 Flugel의 착용동기이론을 결합시켜 복식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복식사의 연구에 있어 단순한 역사적 나열에서 벗어나 개체적인 것으로부터 유형적인 것으로, 사건의 연속으로부터 사건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구조적 틀을 만드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 시기는 복식에서 보여지는 정숙성과 이 정숙성을 유발하는 사회적 배경이 종교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6~12세기는 중세에 있어 기독교적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시기로서 6세기부터 신체를 가리는 긴 의복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고 12세기 이후에는 복식의 장식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서양복식사상 가장 정숙성의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17세기 중반의 영국의 청교도 혁명시기 또한 서양복식사에서 대표적인 정숙성의 시대로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청교도의 영향으로 인해 전시대와는 구별되는 획기적인 의복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이다.

그러나 정숙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복식의 착용동기를 삼은 이 두 시기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숙성의 기준이 다르다. 6~12세기는 신체은폐로서의 정숙성, 청교도 혁명시기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사치와 과시에 치우치던 의복을 규제하는 정숙성을 복식 착용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두 시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복식의 정숙성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복식의 정숙성을 유발하는 두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1. 服飾의 着用動機理論

인간이 의복을 착용하게 된 동기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학설과 이론이 많으나, 身體保護, 裝飾, 羞恥心을 가리기 위함, 呪術的 효과 등은 여러 학자들간에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Brown¹⁾은 인간의 의복착용은, 자신의 신체를 기후나 기타 자연적인 환경들로부터 보

1) Mary E. Roach,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5), p. 65

호, 정숙성 유지, 장식,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Dunlap²⁾은 1926년에 정숙성, 비정숙성, 장식, 보호의 이론이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의복기원의 이론들을 요약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처음의 세가지 이론보다는 보호이론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기후나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날으는 곤충들로부터 보호 받기 위하여 술이 달린 옷이나 늘어지는 옷을 입었다는 것이다.

Hurlock³⁾은 인정받기 위한 보편적인 요구, 인정을 얻기 위한 방법, 자기과시, 귀족사회의 과시, 계급의 구별,富力의 과시, 편안함에 대한 요구 등으로 동기를 분류하였다.

矢部章彦⁴⁾은 의복에 의해 집단이 형성되는 경우 그 집단의 共通性과 特殊性을 나타내기 위하여 착용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마음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의복을 만들거나 선택하거나 한다고 하였다.

Latzke와 Hostetter⁵⁾는 Flugel의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의복의 착용동기들을 상세히 분석했는데 장식, 보호, 정숙성 외에도 편안함을 착용동기로 포함시켰으며 나르시시즘이나 서로 다른쪽의 性에게 매력(clothes to attract the opposite sex)을 주기 위해서라든가 무기로서의 의복 등을 설명하였다.

Gurel⁶⁾은 의복의 기능에 대한 논문에서 의복착용동기에 관한 이론들을 설명하였는데 정숙성이론, 비정숙성이론, 보호이론, 장식이론(the adornment theory) 등을 열거하였다.

Kaiser⁷⁾는 정숙성, 장식성, 보호와 유용성(utility)으로 동기의 종류를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의복과 관련된 동기의 사회적인 중요성은 개인이 어떻게 의복단체에 토대되는 상호작용에서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Lauer & Lauer⁸⁾는 보호, 장식(adornment), 정숙성을 착용동기로 열거하면서 1879년 Haweis가 기술한 의복의 세가지 중요한 요구인 보호, 은폐(to conceal), 과시(to display)를 위한 기능들을 의복의미로 보았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學者들의 多樣한 衣服着用動機理論들은 결국 보호, 장식, 정숙성의 세가지 동기로 요약이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Flugel의 이론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⁹⁾

Flugel은 문명사회 내에서의 복식행동에 이 세 가지 동기들이 서로 작용하고, 심리학적인 견해로 의복의 문제를 다루고자할 때는 장식과 정숙성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며 이 두가지 동기는 서로 반대되어지는 것으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반대 감정 병존'(ambivalent)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2) Ibid., pp. 9-10

3) Elizabeth B. Hurock, *The Psychology of Dress* (New Hampshire: Ayer Company, Publishers, Inc., 1984), pp. 26-28.

4) 矢部章彦, *生活の中の衣服*,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85), pp. 19-22.

5) Alpha Latzke & Helen P. Hostetter, *The Wide World of Clothing*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68), pp. 3-25.

6) Lois M. Gurel & Marianne, S. Beeson,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a Book of Readings* (Iowa: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1975), pp. 3-6.

7)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p. 28-32.

8) Jeanette C. Lauer & Robert H. Lauer, *Fashion Power*,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1), pp. 33-34.

9) Flu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The Hogarth Press Ltd., 1950), p. 17.

다양한 복식의 변화들은 이 상반되는 동기인 정숙성과 과시(display)의 우선권의 관계에 있다. 또한, 이 모순된 동기 사이의 타협점은 보호의 동기에 의해 강화되어지고 조절되어진다. 즉, 보호의 동기가 정숙성과 장식의 동기와 상호작용 한다는 점이다.

복식사는 이 장식과 정숙성의 주기적인 반복 혹은 동시적인 등장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Flugel은 서양복식의 역사에서 정숙성에 치중했던 시기는 신체적인 과시가 금지되었던 중세의 상당기간동안의 금욕적인 시대와 17세기 초 영국에서 퓨리티니즘의 정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을 때로 보았으며 반면 장식에 치중했던 시기는 신체과시와 의복의 과시가 성행했던 시기로서 금욕적인 경향이 사라진 르네상스시대와 18세기 로코코 시대를 대표적인 시기로 보았다.¹⁰⁾

르네상스 시기와 18세기의 복식은 동기 자체는 장식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복식의 내용에 있어서는 각각 자아의 확장파 에로티시즘의 강조라는 점에 있어 분리되어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계속되어질 연구로 마무르고 본고에서는 서론에서 밝힌 두 시기에 복식에서 보여지는 정숙성의 특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정숙성은 긍정적인 충동보다는 부정적인 충동에서 출발하며, 우리가 쉽게 빠져 들게 될 어떠한 유형의 복식의 행동들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근본적인 과시의 경향에 대한 제지적 충동으로 나타난다.

Flugel은 이러한 억제적 충동을 항목별로 분석하였는데 첫째로는 과시의 성적(sexual)형태나 사회적(social)인 형태에 대항해서 나타나며, 둘째 신체(body)와 의복(clothes)의 과시에 대해 나타나고, 셋째 자아(self)와 타인(others)에의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넷째 사회적, 성적인 것에 대한 욕구나 만족의 방지와 혐오, 수치 비난의 방지에 목표를 두며, 다섯째 이러한 과시는 신체의 여러부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볼 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6~12세기와 청교도 혁명기의 정숙성의 개념은 위의 두번째 설명에 해당하며 각각 신체의 과시와 의복의 과시에 대한 억제적 기능으로서 정숙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정숙성은 그레코 로만문명이 붕괴되면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게르만족의 신체보호적인 의복 관습의 영향까지 겹쳐서 복식으로 신체를 가리고자 하는 생각은 더욱 강화되었다.

중세 사회를 지배하던 기독교사상은 육체와 영혼 사이의 엄격한 대립을 지지하였고 신체에 전념하는 것은 영혼의 구제에 해가 된다고 가르쳤으며 이러한 결과 인간은 자신의 육체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의복으로 신체를 은폐한 결과 의복의 양이 많아지고 복잡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이후 영국의 청교도 혁명기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복식사상 어느 시대에서도 이렇듯 집단적으로 장기간 동안 정숙성에 충실한 의복을 착용한 예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17세기 중엽의 영국의 청교도 혁명시기의 정숙성은 위의 시기와는 반대로 의복의 과시에 대한 억제의 기능을 하였다.

Elizabeth여왕(1558~1603)시대의 르네상스적 분위기의 화려하고도 귀족적이며 권위주의

10) Ibid., p. 148.

11) Ibid., p. 54.

적 장식으로 충만했던 복식의 세계에 살던 영국인들에게 종교적인 개혁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갑작스런 신체은폐보다는 이제까지의 입어왔던 값비싸고 화려한 의복에 대한 제재였고 이러한 의복의 과시를 억제하는 것이 청교도가 지향하는 소박, 근검의 태도와 쾌락을 배척하는 종교적 이상에 적합한 태도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였지만 집단적으로 정숙성의 그 억제적 기능이 작용되어져 6~12세기와 더불어 이 시기는 복식사상 대표적인 정숙성 유지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그 정숙성의 내용이 중세와는 달리 의복 과시의 억제에 있다는 것 또한 복식의 정숙성을 파악하는 데에 좋은 시대적 자료가 된다.

2. Freud의 성격구조이론과 Flugel의 동기이론의 집합에 의한 시대구분

Flugel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의 도입과 용어의 사용을 통해 Freud의 정신분석학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Flugel이 복식의 착용동기 구조를 보호, 장식, 정숙성의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장식과 정숙성에 관한 설명을 한 것과 Freud가 id, ego, super-ego로 구성되어진 인간의 성격구조에 있어 ego를 중심으로 한 super-ego와 id의 관계를 분석한 것은 그 각각의 요소들의 특징과 그들의 연관성의 분석에 있어 서로 유사성을 가지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연결시켜 새로운 시대구분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개개인의 성격구조를 분석한 것이나 성격구조의 용어들과 그 특성을 시대구분의 용어와 특성으로 사용하여 시대구분의 새로운 방법적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Freud의 성격구조이론에 따르면 id는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으로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이라 부른다. id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가치관념, 윤리의식 또는 도덕성 따위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생각, 즉 쾌락원칙에 따를 본능의 충족을 위해 쫓기고 있다는 것이다.

ego는 퍼스낼리티의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id와 super-ego를 다스리며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총체적 인격과 장기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작용한다. ego가 집행기능을 슬기롭게 해내는 경우에는 조화와 적응성공이 뒤따른다. 또한 ego는 쾌락원칙 대신에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을 따르게 된다.

이 두 가지의 성격구조의 특성에 따른 시대구분은 착용동기의 장식과 관련지을 수 있다.

자아에 충실하면서 장식적인 의복을 착용하는 시대는 그 특성상 Ego적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르네상스 시대를 들 수 있고, 본능적이고 에로틱한 장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는 Id적 시대라고 분류하여 18세기를 예로 들어 볼 수 있는 것이다.

퍼스낼리티의 세번째 주요영역은 super-ego는 인격의 도덕적이고 陪審的 기능을 맡는다. 이는 현실보다는 이상세계를 대표하고 현실적 성취나 쾌락보다는 하나의 완전함을 기하며 인간의 내적 도덕률이 된다. 또한 super-ego는 두 개의 하위 계통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아이상(ego ideal)과 양심(consciousness)이다.¹²⁾

12) James Strachey,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ume XIX* (1923-25), *The Ego and the Id and Other Works*, (London: The Hogarth Press, 1961), pp. 12-39.

이것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정숙한 의복 착용을 유발하는 두 시기의 공통적인 시대적 특성과 일치하는데 이 시기들은 개인을 존중되지 않으며 어떤 종류이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중심적이고 개인은 그 밑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시기였으며 의복에서도 집합적인 규제나 금지가 가능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숙성에 치중하는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두 시기를 Super-ego적 시대라고 분류하였으며 두 시기의 공통적 특징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현실보다는 이상적 사회를 꿈꾸며 성취나 쾌락보다는 내적 도덕률을 앞세운 시기라고 보는 것이다.

Ⅲ. 時代的 特性과 服飾의 貞淑性

1. 6~12世紀

1) 사회 문화적 배경

중세라는 용어와 라틴어에 유래된 "medieval"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18세기 계몽사상에 의해서였다. 중세 천년은 고대와 근대의 거대한 두 봉우리 사이에 있는 개곡 내지 저락의 시기였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고대, 중세, 근대로 시대를 구분하는 삼분법이 확정적인 것이 되었다.¹³⁾

중세의 역사적 세분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A. D. 300~500년까지를 고대로부터의 전환기, A. D. 500~1050년까지를 중세초기라 하여 843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전-봉건시기, 그 이후를 초기-봉건시기로 나눈다. A. D. 1050~1300년을 중세 전성기라 하고 1200년 무렵에서 12세기와 13세기로 나누기도 하며 A. D. 1300~1500년까지를 중세후기라고 구분하여 볼 수 있다.¹⁴⁾

이러한 중세사회를 A. Müller¹⁵⁾는 奉仕라는 유대에 의해 한데 묶여 있는 유기체적, 공동체적 사회(Gemeinschaft), 즉 그 안에서 각 계층이 전체 공동체의 善을 위해 필요하고 또 신이 명령하는 기능을 이행하는 사회로 보았으며 Strayer와 Coulborn¹⁶⁾은 봉건시대의 특징 중의 하나로 "신앙의 시기"로 두드러진 봉건시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漢代와 唐代사이의 중국의 불교 침투와 중세 유럽의 시대의 기독교의 영향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1) 基督教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시대였으며 역사를 움직이는 본질적 부분 중의 하나인 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었다. 기독교는 종교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이고 봉건시대를 거부하면서도 정당화 시켜 주는 등 봉건사회와 매우 복합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敎會와 宗教를 고려하지 않고는 중세에 대한 가치있는 연구는 불가능하다. 중세는 인간 속에서 또는 인간을 중심으로 사탄과 神이라는 거의 동등하게 큰 힘을 지닌 권능 사이의 투쟁으로 계속되었다. 따라서 중세의 시대적 성격 그 자체에 교회는 기본적인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13) Crane Brinton, 崔明官·朴恩駒譯, 西洋思想의 歷史, (서울:乙酉文化社, 1992), p. 184.

14) Daneil D. McGarry & James A. Wahl, 李石佑譯, 西洋中世史大要, (서울:탐구당, 1987), p. 3.

15) W. K. Ferguson, 陳元淑 옮김, 르네상스사론, (서울:집문당, 1991), p. 154

16) 나중일편, 봉건제, (서울:까치, 1990), p. 81

이다. 기독교가 제 구실을 다한 것은 두가지 차원에서이다. 하나는 막강한 세속권력에 기본을 둔 이데올로기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적 의미의 종교차원이다.

기독교세계가 발전하게 된 요인으로서는 1000년경부터 시작된 각 기독교 공동체들의 치열한 경쟁심으로 인한 교회건축의 발전, 농업의 발전, 인구의 비약적인 증가 등을 들 수 있다.¹⁷⁾

교회가 중수, 개축되어지고 11세기까지 이루어진 교회개혁운동으로 인해 교황은 서유럽 전역에 걸쳐 국제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여러 수도원이 창설되었다.¹⁸⁾

중세인의 생활태도는 기독교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특히 종교적 제의적 연표에 따른 시간관이나 종교적 관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貧食, 好色, 貧慾, 憤怒, 懶怠, 虛榮, 傲慢 등의 7대 惡德(seven deadly sins) 개념으로 설정된 善과 惡의 개념은 수세기만에 걸친 정신적 통일의 요소가 되었다. 중세사회 惡德중에 가장 최대악덕으로 여긴 傲慢(pride)은 신분적 계급사회에 있어 사회구조에 대한 복종과 교회의 권위가 으뜸이 되는 시대의 종교적 개념이었다.¹⁹⁾

이러한 개념들은 Southern의 지적대로 교회와 국가가 하나로 융합되어진 교회국가(church-state)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중세사회는 역사적 판단과 비판적 사고에 관한 관념이 결여된 종교적 설교 위주의 전통과 권위 및 관례를 기초로 하는 획일적인 유형주의로 표현되고 있는 사회로 실험보다는 신앙이 우선하였고 이상과 현실, 詩情의 事實과 史實사이의 명확한 구획이 없었던 사회이었다.

자연과 역사 및 심리학 등은 종교적 이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종속적인 것들이요, 인간에 대한 神의 계시로 나타난 징표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한 Bernheim의 설명²⁰⁾이 적절함을 뒷받침한다.

스콜라정신이 중세의 철학적 지주가 되면서는 영적 생활은 내면화 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죄와 공적의 척도, 처벌이나 보상을 자신의 내부에서 추구했으며, 회개는 벌금과 비슷한 처벌을 가하고 인간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神이며 교회며 자신과 화해를 하였다. 뉘우침과 참회가 요구되고 자신도 그것을 원하게 되며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참회였다.

1025년 종교회의 이후 문맹자들을 위해 글 대신에 그림이 이해의 폭을 넓힌다고 하여 그림은 도덕화된 형태로 변화하였다. 성경책, 찬송가, 도덕화된 식물 해설집들은 성경과 종교 교육을 도덕적 일화의 형태로 변형시켰다.²¹⁾

(2) 封建制

봉건제도(Feudalism)는 9세기부터 12세기 사이에 유럽에 보편화 되어 있던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제도였다. 이러한 제도는 중세생활의 여러 면에 있어서 봉건화 시켰는데 법률, 전쟁 등이 영향을 받았으며, 교회는 봉건주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였다.

중세지배자의 권력은 과거로 부터 전승된 오랜 이론과 관습들-고전적, 기독교적, 게르만적인 것-에 의해서 제약되었을 뿐 아니라 9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기까지 봉건적 권한과 관

17) Jacques Le Goff, 유회수역, 서양중세문명,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p. 83.

18) Brian Tynary & Sidney Painter, 이연규역, 西洋中世史, (서울: 집문당, 1991), pp. 225-226.

19) 林熙完, "西洋中世의 七大惡德과 社會의 變化," 中央史論, 第三輯, 中央大學校 史學硏究會, 1980年 11月, p. 73

20) 상계서, p. 75.

21) Jacques Le Goff, 전계서, pp. 416-418.

습에 의하여 억제되었다.

사회사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Bloch²²⁾는 그의 저작 「봉건사회」에서 어느 저서보다도 유럽 봉건사회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 전체에 걸쳐 형성되는 “종속관계”를 봉건제도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봉건제도의 기본적 요소는 領主, 封臣(vassal), 封(fief)이었다. 바샤는 충성(fidelity)을 맹세하고 臣齎(homage)를 행함으로써 영주와 긴밀한 개인적 종속관계를 맺고 영주로 부터 封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하였다. 封은 대개 경작민이 딸린 일정량의 토지였다. 바샤에게 封이 수여되면 그는 領主에게 봉사(services)를 제공해야 했다.²³⁾

봉건제도하의 유럽 사회는 계층적 사회라기 보다는 불평등의 사회였다. 귀족이라기 보다는 지배자를 가진 사회, 노예라기보다 농노를 가진 사회였다.

봉건제도로 인하여 중세생활의 여러 국면이 봉건화 되어졌다.

첫째, 봉건법과 재판이 관습에 의해 결정되어, 하나님의 가호를 요청하는 서약이나 공동서약이 재판에서 사용되었고, 무죄나 유죄를 나타내도록 신에게 요청하는 죄인 판별법이 사용되었으며 둘째, 봉건전쟁으로 騎士道, 城寨, 騎士軍이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교회는 봉건주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였다. 교회는 봉건관계들을 기독교적인 태도와 원리로 순화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교회 관계자들은 토지와 직책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건제도에 참여하였다.

봉건제도가 사회에 미친 가장 커다란 영향은 사회의 위계개념인 계층제도였다. 사회가 신분들(orders)로 나뉘어져 있다는 개념은 모든 신학적, 정치적 사고에 그 끝수까지 침투되어 있었다.

봉건제도를 하나의 ‘社會型’으로 까지 정의하면서 봉건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 제도와 사회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한 Bloch는 봉건제도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는 해석 대신에 전체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럽 봉건제도의 기본 성격은 位階制 사회라기 보다는 불평등 사회이며, 귀족의 사회라기 보다는 우두머리의 사회였으며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 농노제 사회라고 보고 이에 따라 봉급제 대신에 봉토제도를 채택하였고 전문직 전사계급으로 인해 인간과 인간이 결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복종과 보호의 유대관계가 생겨난 것이 유럽 봉건제의 특징이라고 보았다.²⁴⁾

중세는 안정되고 흔들림을 모르는 시대요 믿음이 굳센 시대이며 자기들의 진리개념이나 도덕률의 타당성을 꿈에도 의심치 않고 정신의 모순이나 양심의 갈등도 모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충동이나 옛것에 대한 권태를 조금도 느끼지 않는 시대였다. 정신에 있어서는 절대권력을 가졌던 교회에 의해 신의 섭리에 따른 질서를 갖고 있었으므로 기성질서의 명령이나 교리의 타당성에 대한 일체의 의혹을 밖에서 부터 제거하였다.

문화는 물론이려니와 사회의 모든 정신생활, 모든 학문 예술활동, 모든 사고와 의욕이 교회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었다. 만물을 彼岸的, 神的인 것과의 관계에 놓고 보며 또한 그

22) Marc Bloch, 한정숙역, 봉건사회 I, (서울:한길사, 1986), p. 13.

23) Sidney Painter, *Medieval Society*, (New York:Ithaca, 1967), pp. 11-27.

24) Marc Bloch, 한정숙역, 봉건사회 II, (서울:한길사, 1991), pp. 254-259.

렇게 해석하였다. 신앙이 지식에 우선한다는 원칙에서 교회는 스스로 문화의 방향과 한계를 지정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중세 초기는 권위와 강제에 의한 문화였던 것이다.²⁵⁾

2) 정숙성 : 신체과시에 대한 억제

이 시기에 복식에 나타난 정숙성은 신체 과시를 억제하기 위한 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러한 신체은폐형의 복식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기후나 주거형태로 인해 신체보호적 면에서도 이러한 의복형태가 요구되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은 겨울이 혹독하게 추웠으며, 주거형태는 봉건제도 하에서 영지를 관할하기 위해 돌로 지어진 외딴 성이었는데, 외적을 막고 땅을 보기 위해 높은 언덕에 세운 성에는 늘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둡고 바람이 세었으며 돌로 만들어진 추운 실내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몸을 가리는 의복을 착용에 대해 긍정적인 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체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복식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복의 종류마다 몸을 드러내지 않으며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봉제방법이 발달되었으며 정숙성의 기본목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식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되어 다양한 직물, 화려한 색상, 문양 등의 사용으로 장식의 욕구를 해소하였다.

(1) 의복형태

로마의 기독교시대였던 1세기에는 사실상 의복은 신분에 따라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그 중 신분이 낮은 계급에서 착용하던 길이가 짧은 의복은 3~4세기 동안은 군인이나 노동자들이 주로 입게 되었다.

3세기 경의 로마의 카타콤의 벽화를 보면 상인이나 노동자들은 짧은 옷으로, 성자들 뿐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긴 옷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기독교가 보급되던 초기에는 유럽에서는 의복의 남녀 구별이 없이 모두 달마티카(dalmatic)를 착용하였으며 6세기경부터 중세 전반에 걸쳐 벽화나 조각 등에 이러한 두 가지 형의 의복이 보여진다.

3~4세기경에는 바바리안의 세력 확장으로 인해 짧은 의복이 유럽에 소개되고, 동로마제국에서는 긴 의복이 전파되어 기독교화 되어가는 서유럽에서 유행되게 되었다. 유럽 전역에서 기독교가 제대로 뿌리를 내린 것은 6세기경이며 이때부터 사제들은 농촌에서의 생활복으로 이 긴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으며 중세 전반을 통해 변화가 없었다. 이후 이것은 저술가들을 통해 언급되고 종교적인 정보망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어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의복으로 중세기간동안 자리 잡았다.

특히 6세기경에는 성직자들의 의복이 위엄, 상징적 특성 등을 갖추면서 발달하여 튜닉(tunic), 달마티카(dalmatic), 알브(alb), 초서블(chasuble)등의 카톨릭 전례복이 되었는데 이는 로마제국의 의복 혹은 로마의복을 수용했던 비잔틴 제국의 의복형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5) A. Hauser, 白樂晴譯,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古代·中世篇, (서울:창작과 비평사, 1976), p. 206.

이때부터 12세기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계급의 서구 기독교인들은 끈질기게 긴 의복을 입도록 압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의복의 확산에 의해 서유럽의 기독교화는 성취될 수 있었다. 의복을 통해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앙이라는 카톨릭적 특성을 고취시킬 수 있었고 의복의 통합은 종교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⁶⁾

국가간의 의복구별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이 시기에는 프랑스, 영국의 남성들은 대체로 입는 상황이나 계층에 따라 길이가 짧거나 긴 언더 튜닉과 아우터 튜닉을 입고 어깨나 가슴에서 고정시키는 로마식인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된 망토를 입었다. 다리부분을 감싸는 의복은 종류가 비교적 다양하며 명칭도 여러가지로 불리웠다.

여성들의 전형적인 복식은 길고 꼭 맞는 소매가 달린 발목까지 오는 언더튜닉이나 가운이었으며 그 위에 속옷의 소매가 보이도록 소매길이가 짧거나 소매를 접은 오픈 슬리브 가운을 다시 입었다.²⁷⁾

외투로서 특별한 형은 없지만 어느 것이나 간단한 장방형의 천으로서 종교상의 관습에 따라 머리에 뒤집어 썼다.²⁸⁾

영국은 남녀 모두 팔과 다리를 덮는 의복을 착용하였으며, 이러한 옷차림은 Tudor왕조(1485년부터 시작됨)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영국 여자들의 기본의복인 가운(gunna라고도 함)은 2장을 겹쳐 입어 속옷과 겹옷으로 구별하였는데 속에 입는 언더가운은 길이가 겹옷보다 더욱 길고 넓어 바닥에 끌릴 정도였고 소매는 손목까지 딱 맞으면서 길었다. 이에 비해 겹에 입었던 가운은 3/4정도의 길이에 소매 역시 3/4정도의 길이로 넓고 헐렁한 편이어서 속에 입는 가운이 보이게 디자인 되어 있어²⁹⁾ 신체를 가린다는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장식적인 효과를 내도록 한 의도가 엿보인다. 하층계급의 여인들은 목까지 덮는 무늬 없는 소박한 가운을 입었다.³⁰⁾

가운의 위에는 원형이나 사각형의 외투나 망토를 입었으며 남자의 것과 형태는 비슷하나 길이가 더 길어 옷자락이 바닥에 길게 끌리도록 하였다.

10세기경의 그림에 나타난 영국여인이 입고 있는 가운은 너무 헐렁하고 커서 여인의 치수보다 상당히 큰 의복처럼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이러한 형의 의복과 긴 소매가 유행이었다. 긴 소매는 팔저로 팔목에서 잡아 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운 날씨에는 보온의 역할도 하였다.³¹⁾ 10세기까지의 영국의 남녀 모두 대체로 길고 헐렁한 의복으로 신체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는데 남자의 기본 의복인 튜닉은 길이가 조금 짧아 무릎이나 무릎아래까지이며 대체로 왕의 튜닉은 더욱 넓고 길었다. 다리부분은 바지를 입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다리카바(leg-cover)가 사용되었다.

남자들도 역시 원형이나 사각형의 외투를 들었다.

특히 11~12세기에 걸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남녀 모두 길고 끌리는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는데 복식의 정숙성에 장식이 차차 가미되기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26)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87), p. 170.

27) Blanche Payne,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역, 복식의 역사, (서울 : 까치, 1988), p. 170.

28)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古代・中世編, (東京 : 光生館, 昭和53), p. 163.

29) Doreen Yarwood, *English Costume*, (London: B. T. Batsford, 1985), p. 40.

30) Blanche Payne, 전계서, p. 171.

31) 상계서, p. 174.

교회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여전히 종교적인 정숙성을 요구하여 의복을 축음을 위한 옷으로 보고 여자들의 화려한 옷과 남자들은 갑옷을 예배용으로 긴 의복으로 바꿀 것을 설교하여 긴 의복을 착용하여 평소에도 경건한 자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는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³²⁾

십자군 원정 이후 나타나는 새로운 유행에 대하여서도 교회는 물론 경고하고 의복이 화려하고 귀족적으로 되는 것은 윤리의식이 흐트러지고 신앙심이 하락했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12세기 후반부터는 원래의 종교적 목적과 관계없이 과장되게 긴 복식들도 나타나게 되어 튜닉은 너무 길고, 가운데 외투는 끌리는 자락을 더욱 길게 했으며 머리도 너무 길고 신발은 끝이 구부러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교회종사자들과 목사들은 여전히 기독교적 이상인 겸손함과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 긴 의복을 입었다.

11세기 무렵 남성용 튜닉은 길이가 무릎까지인 것과 발목까지인 것으로 나뉘어져서 일상복과 예배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험령하고 길게 끌렸으며 걸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허리에 가죽 벨트를 매어 정리하는 정도로 차림새를 조절했고 소매도 역시 길어서 손을 완전히 덮을 정도였다.

여성용의 가운데 역시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서 몸을 전부 가리기에 충분했으며 길이는 남자들 보다도 길어져서 바닥에 끌리는 것이 보통이었다.³³⁾

이러한 의복형태들은 긴 의복이 정착한 6세기부터 12세기까지에 나타나는 경향이었으며 12세기 후반부터는 이러한 경향에도 동요가 일기 시작하여 색상과 직물이 더욱 화려해졌으며, 조각에 나타나는 인간상에 있어서도 그 선이 자유로워졌고 여성 의복의 실루엣도 자연스러운 체형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³⁴⁾

(2) 헤드드레스

이 시기는 남녀 모두 신체를 가리는 의복과 더불어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헤드드레스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적 교리처럼 되었고 정숙함의 상징이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로마시대의 양치기와 농부들이 사용한 것이 이 시대에 다시 유행하게 된 의복에 달려있는 풍성한 후드나 프리지안이나 원뿔형의 모자를 썼으며 모자가 발달하게 되자 중세에서는 종류가 다양해져 이것만 보고도 신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세는 남성중심적 전사사회로서 생존은 항상 위협받고 있었으므로 여성의 생물학적 종족 번식력은 축복받을 일이라기보다는 저주받을 일이었다고 따라서 여자는 존경받지 못했으며 기독교적인 생활태도로 인해 여자가 가정내에서 열등한 존재였으므로 여성들에게 있어 베일(veil)이나 뿔(wimple)의 착용은 정숙성의 척도가 되리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8세기 이후부터는 신부와 수녀들이 평신도들과 폭넓게 접촉을 하고 교회는 복식에 관한 비난을 전도사업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두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여자들의 머리는 교회에서 기

32) François Boucher, op. cit., p. 170.

33) Doreen Yarwood, op. cit., pp. 64-65.

34) 丹野 郁, 전제서, p. 178.

도를 할 때에는 완전히 은폐하도록 요구되었다.³⁵⁾

특히 기혼여성이 공공장소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이 헤드드레스를 사용하여 머리를 가려야 했으며 가벼운 천을 길게 해서 주름이 많은 베일을 썼는데 이것은 머리는 가렸지만 半透明이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부인이 남편의 의지에 따르려는 상징이라고 보여지며 남편만이 아무 것도 쓰지 않은 아내의 머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했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인가 쓰지 않으려면 그 머리를 잘라라. 머리를 자르지 않으려면 머리를 덮어라.” 라는 종교적 지시를 따르는 행위였다.³⁶⁾

더구나 설교자나 사제들은 죽은 자만이 아니라 더욱 나쁜 것은 지옥이나 연옥에 떨어진 자들의 머리칼이라고 무서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부인들은 머리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처녀들은 그다지 규제가 심하지 않아 머리를 묶은 채로 나다니거나 땅은 머리로 장식을 하였고 젊은 여자들은 머리를 흐트러뜨려도 관계가 없었지만 부인은 묶어야 했다.

이러한 연유로 사용하게 베일은 여성의복의 품목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중의 하나로 고대 이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숙성의 요구에 대응하여 겸손함의 의미로 쓰이다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차 우아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결혼과 장례를 상징짓는 용도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

베일은 노르만에 의해 카바치프(couvre-chef)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1130년대까지 영국에서 이 시대의 다른 의복과 마찬가지로 길었으며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중간을 묶기도 하였던 것이 이후에는 풍성한 드레이프속으로 머리를 넣는 스타일이 되었다.³⁷⁾

베일은 12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단독으로 보다는 워플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여 약 200년간 유행이 지속된다.

영국에서 유행한 워플은 미망인들이 오랫동안 착용했고 아직까지도 종교적 단체의 여자들이 머리와 귀를 가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시대에는 여자들의 머리카락 뿐 아니라 귀를 性的 요소로 간주하여 종교적으로 혐오하였으며 따라서 여성들은 머리칼 뿐 아니라 귀까지 가리는 것이 정숙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받게끔 유도되었던 것이다.³⁸⁾

워플은 보통 흰색의 린넨이나 실크로 만들어지며 목 주위를 감싸고 위로 올라가 얼굴 근처와 머리카락을 감싼 뒤 그 끝이 머리 꼭대기에서 겹쳐서 고정되었다. 보통 아래 가장자리가 가운의 목 둘레 아래로 까지 왔다. 여기에 베일을 덮음으로서 머리가 정리되는 것이다.³⁹⁾

비슷한 스타일로 바벳뜨(barbette)가 있는데 워플이 머리의 둥근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이것은 위가 납작하며 테가 없는 모자인 필 박스(pill box) 모자에 턱을 가리는 밴드를 붙인 것인데 여성들의 지위가 높을수록 턱을 많이 가리도록 되었다.⁴⁰⁾

고깃(gorget)도 이와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결혼한 여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가슴에서 부터 귀까지 가리게 되어 있었다.

35) Jacques Le Goff, 전계서, pp. 416~418.

36) マシクスーフオン・ペーン著, イングーリトローツェク編, 永野藤夫, 井本响二譯, モートの生活文化史1 (東京:河出書房新社, 1989), p. 84.

37) Doreen Yarwood, op. cit., p. 50.

38) Lynn Schnurnberger, *Let There Be Clothes*, (New York: Workman Publishing, 1991), p. 140.

39) Blanche Payne, 전계서, p. 196.

40)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Bonanza, 1986), p. 26.

2. 淸教徒 革命期

1) 사회 문화적 배경

서유럽의 여러나라들이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대립으로 30년 전쟁(1618~1648)을 치르고 있는 동안 영국에서는 17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차국내의 종교문제로 내전을 치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크롬웰(Oliver Cromwell)이 이끄는 청교도파로 정권이 넘어가서 1660년까지 청교도에 의한 정치를 이루게 된다.

「淸教徒(Puritan)」라는 명칭은 1559년에서 1567년까지 계속된 국교회에 대한 청교도의 “祭服論爭(the vestiarian controversy)”으로 생겨난 것인데, 이들은 성경과 예배 그 자체만이 종교의 특성이라고 보고 국교회에서 행하는 교회안에서 사제들의 白色祭服의 착용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교직의 특권을 상징하는 다른 의복들의 착용도 완강히 반대하였다.⁴¹⁾

또한 이들은 왕당파의 군인들이 장발이었던데 반해서 짧게 머리를 깎아 圓頭黨(round heads)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⁴²⁾

청교주의는 칼빈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신적인 주요요소는 예정론과 평등사상으로 예정론이란 구원의 길로 인도되도록 정해진 選民은 神政政治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며, 평등사상은 모든 選民은 神 앞에서 평등하다는 생각이다.

청교도들은 사회의 비리와 죄악을 고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再臨을 준비하는 일을 그들의 의무로 여겼으며, 구성원들은 選民이 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영원의 즐거움을 가지게 하였다.⁴³⁾

일반적으로 청교도의 특징은 네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영국국교와 신앙적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불만이 개인의 깊고 격렬한 신앙적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이와 같은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미사제복, 예배 및 생활전반에 대한 개혁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고 넷째는 그들의 신앙 체험을 체계화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契約神學을 적용했다는 것이다.⁴⁴⁾

이 네가지의 특징은 모두 국교도들의 儀式에만 치중하는 종교적 태도에 대해 상반된 것이었다. 청교도들은 개인의 경험적인 종교적 체험에 상당히 비중을 두며 성령교리를 신봉하여 진심으로 성령에 대해 설교했으며 이를 종교생활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또한 청교도들은 이러한 종교적 신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를 실천에 옮겨 개혁하려는 실천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며 청교도 혁명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신이 계약의 형태로 성도들을 불러모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구약성서 다음으로 즐겨 읽은 성경은 성 바오로의 서한과 칼빈의 저서들이었으며 그들은 신의 은총을 밝히기 위해서 영혼의 내면활동을 철저하게 살폈으며 쾌락을 배척하고 쾌락의 뒤에는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고 여겨 이를 용서하지 않았다. 종교문제에 전념하고 정치문제에 열중하며 항상 강직, 완고, 청렴하게 행동하며 성실과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영국인들의 성격은 청교주의의 영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청교주의는 중세 영국의 사상과 생

41) Sidney A. Barrei, 임희완역, 서양근대사에서 종교의 역할, (서울: 집문당, 1989), p. 106.

42) Andre Moroaa, 신용석역, 영국사, (서울:기린원, 1992), p. 313.

43) 임희완, 영국혁명의 水平派운동,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33(서울:민음사, 1988), p. 33.

44) Sidney A. Barrei, 전개서, pp. 118-119.

활로 부터 내려온 정신적 유산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쾌락이나 행복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을
자진해서 포기하고 진지하고 용감한 태도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⁴⁵⁾

청교도가 지배하던 시기의 일반인들의 생활은 음울하였다

영국인들이 즐기던 연극, 경마, 투계, 주점 등의 오락을 금지시켰고 유곽과 도박장을 폐쇄
하였으며 일요일에는 누구나 가정에서 성서를 읽거나 시편을 노래해야 했다. 1644년 의회에
서는 일요일에는 식료품 판매, 여행, 물자수송, 댄스 등 일상생활 중 많은 것을 금지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했다. 카톨릭과 국교회의 의식에서도 화려하게 보이는 것은 전부 없
애도록 하였다.

청교주의 시대에는 美를 배격하였지만 그 중에도 밀튼(John Milton)이나 번안(John
Bunyan) 같은 작가들은 각각 「失樂園(Paradise Lost)」, 「天路歷程(Pilgrim's Progress)」 등
의 종교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는데 있어 아름다우면서도 청교도적인 장엄한 분위기의
작품을 발표하여 성서보다도 종교생활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데 공헌하였다.⁴⁶⁾

2) 정숙성 : 의복과시에 대한 억제

(1) 의복의 근검·소박

이미 서술했듯이 청교도들은 교회에서의 制服에 대해서 논쟁을 제기한 바 있는 만큼 이들
은 일상복에 있어서도 종교적으로 경건한 신앙심에 바탕을 둔 근검, 소박한 복식을 착용하게
된 것은 당연한 변화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복식사상 처음으로 중산층 취향의 유행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시기의 복식은 時代를 풍미하던 엘리자베스여왕 시절의 르네상스 복식에서 청교주의의
사상에 맞춘 복식으로의 전환하게 되며 비록 20년간의 길지 않은 시간동안 완전히 前時代와
분리되는 독특한 의복형태를 갖추게 된다. 찰스 1세가 통치하던 기간동안의 영국의 유행복장
은 전형적 바로크 모드로서 까발리에르 모드(Cavalier mode)라고 불리던 복장으로 귀족계급
에서 착용하였으며 다양한 장식, 레이스, 러플 등으로 화려하기 그지없는 옷차림에 남자들의
긴 머리가 유행이었다.

그러나 청교주의자들은 이 시기동안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지도 않으며 전시대의 허식
으로 꾸며진 복장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짧게 깎은 머리, 검소한 칼라와 커프스를 달아 화려
한 색상과 장식 대신에 단순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일관하며 모든 색상은 어둡고 회색빛이
도는 색으로 바뀌게 된다.⁴⁷⁾

긴 머리에 새 깃털로 장식한 폭 넓은 모자를 쓰고 레이스 옷깃을 단 국왕 찰스 1세와 왕비에
비해 짧은 머리를 한 도제, 회색 옷을 입은 청교도 주부들 사이에는 편견, 불만, 침묵의 높은
장벽이 있었다는⁴⁸⁾ 당시의 묘사는 종교적 감정의 차이만큼이나 복장의 착용이 현저히 달랐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의복에 사용된 재료, 색상, 장식들로도 귀족과 청교도로 구별이 가능하였다. 귀

45) 상계서, p. 96.

46) Andre Moroa, 전계서, p. 342.

47)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p. 158.

48) Andre Moroa, 전계서, p. 304.

족들은 주로 새틴, 실크, 타웨타 등의 옷감으로 만든 자켓, 브리치스, 가운 등에 레이스 실크, 리본 고라, 나비장식 등을 하고 파스텔조의 밝은 색상을 입었으나, 청교도는 적합한 천이나 모직 등으로 의복을 만들어 입었으며, 단순한 흰색 마직이나 케임브릭 등으로 칼라, 커프스, 속옷등을 만들었다. 색상은 갈색, 회색, 흐린 자주나 흐린 빨강, 크림색, 검정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당시에는 가운 위에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처리한 에이프런을 장식용으로 착용하는 것이 유행이었으나 청교도 부인들은 크고 평범한 에이프런을 실제로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입게 되었다.

청교도 부인들은 레이스를 가장자리에 단 모자나 흰색의 캡을 써서 머리칼을 완전히 가렸으며 외출할 때는 남자들과 비슷한 검거나 어두운 색상의 펠트로 된 모자를 썼다.

화장품과 향수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었으며 보석도 전시대에 비해 적게 사용하였다.

(2) 장식의 배제

청교주의의 영향을 받아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남자들의 자켓의 패드와 여성의 파당계일이었다. 러프는 풀칠을 하지 않고 세우지 않게 되자 자연히 어깨를 덮는 칼라의 형태로 되어졌다.⁴⁹⁾

남자의 자켓은 모든 장식을 없애버렸으며 착용자의 지위에 따라 길이의 차이가 좀 있었을 뿐 형태는 거의 비슷하였다. 까발리에르들은 자켓을 대단히 짧게 입고 단추를 두 세개 풀어서 속의 흰 셔츠를 보이도록 했으며 소매는 전체가 슬렛쉬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길이가 길어졌고 단추는 완전히 채워져 있으며 소매는 평범하고 좁아졌다.⁵⁰⁾

이와 같이 자켓의 착용방법의 차이로 인해 남성복에서 셔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게 되었다. 귀족들은 짧은 자켓때문에 자켓과 브리치스 사이로 속셔츠가 보였는데 반해 청교도들은 셔츠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브리치스는 무릎까지 알맞은 너이로 맞았는데 이것도 물론 평범하고 단순한 프릴이나 러플로만 끝처리를 하였으며 다리 바깥쪽 옆에 다는 밴드나 리본 장식은 여전히였다.

레이스로 장식한 칼라인 폴링밴드(falling band)와 커프스는 그 장식의 차이로 인해 귀족과 청교도가 완전히 구별지어졌다. 귀족들의 그것은 상당히 장식적이어서 레이스 장식이 화려하였으나, 청교도들은 작고 뾰뚱한 칼라를 달고 칼라에는 단순한 끈으로만 묶어 주었는데 칼라는 론(lawn)이나 케임브릭 등의 평범한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형태에 있어서도 아주 단순해졌다.

구두는 앞끝이 사각형이며 구두의 굽은 중간이나 높은 정도였으며 색상도 다양하고 리본장식이 있었으나 청교도들은 나비모양이 달린 검은 구두를 신었다.

부드러우며 흰색이나 담황색의 가죽으로 된 긴 부츠 등이 있었으나 청교도들은 역시 형태가 단순해진 검은 색 부츠를 신었다. 특징적인 청교도 모자는 검고 뾰뚱한 펠트로 만들어진 높이가 높은 (high-crowned) 모자를 남녀 모두 썼으며 여기에는 리본, 밴드, 버클 등으로 장식하였다. 이에 비해 귀족들은 높이가 낮았으며 넓은 챙에 큰 타조 깃털 장식이 흔들리고 맨

49)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London:Orbis Publishing, 1980), p. 133.

50) Doreen Yarwood, *English Costume.*, p. 155.

드에는 빛나는 보석을 끼워박은 화려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청교도와 귀족들은 이 모자만을 보고 도 구별이 가능할 정도였다.⁵¹⁾

머리의 형태는 청교도의 특징인 짧은 머리(roundhead)였으며 수염도 깨끗하게 면도하고 잘 정돈하여 깎은 모습이었다.

청교도를 특징짓는 무거운 참나무 지팡이가 1680년대 까지 남자복장의 중요한 장식이었다.

가장 보편적인 색상은 검정, 어두운 갈색, 호린 회색 등이었으나 때로 자켓의 소매에는 호린 빨강색이나 노란 줄무늬 천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청교도들의 부인들은 대개 남편을 따라 복식을 겸소하게 바꾸고 장식을 없앴다. 가운데서도 불필요한 화려한 장식들을 없애고 단순하고 평범하게 바꾸었다. 허리선은 높아졌었던 것이 이때는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아 왔다.

스커트나 소매에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소매통은 좁고 단순해졌다.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폴링 밴드나 칼라는 평범한 흰색으로 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 칼라로 테끌레떼한 가슴부분을 완전히 덮었다.

IV. 結 論

6~12세기와 17세기 중엽의 청교도 혁명 시기는 두 시대 모두 종교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이며 이 시대들의 종교는 신앙심은 물론 정치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각각의 시대의 복식은 정숙성이 강조되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공통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공통적인 사회적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두 시기는 복식착용동기에 있어 각각 정숙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Flugel의 정숙성 분석과 관련하여 보면 정숙성이 요구되어지는 내용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6~12세기는 기독교적 종교관에서 비롯된 신체의 과시를 금하는 정숙성이 요구되어 남녀 구별없이 길고 풍성한 의복을 입음으로 신체를 전체적으로 가리고자 하였으며 여자들의 경우에는 머리까지 가리도록 도덕적으로 요구되어져 머리를 덮는 복식의 종류가 많이 나타났다.

청교도 혁명기에는 르네상스 이후동안의 쾌락적이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비판이 청교 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여 청교도가 이상으로 삼는 쾌락의 혐오와 근검, 절약, 소박함 등의 종교관에서 비롯된 의복의 과시를 금하는 정숙성이 요구되어졌다. 따라서 의복은 재료나 장식에 있어 근검하고 소박한 경향으로 바뀌어졌으며 모든 장식은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복식의 정숙성을 유발시키는 이 두 시기는 모두 종교적인 시대였으며 이것이 정치에 까지 영향을 미쳐서 종교와 정치가 모든 개인들을 개성을 가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적 이념아래 집합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속에서의 개인으로 만들어 버렸던 시기이다. 인간은 도덕적, 윤리적 제재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모든 행동은 결과적으로 종교의 이상에 맞는 것이어야

51) J. Anderson & Madge Garland, op. cit., p. 133.

했으며, 이것은 Freud의 성격구조 중 super-ego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Flugel의 동기이론과 Freud의 성격구조와 이론을 접합시켜 새로운 시대구분의 용어로 사용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두 시기를 복식의 정숙성을 유발하는 Super-ego적 시대로 분류하였다.

參考文獻

1. Mary E. Roach.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John Wiley & Sons, Inc., 1965.
2. Elizabeth B. Hurock. *The Psychology of Dress*. New Hampshire:Ayer Company Publishers Inc., 1984.
3. Alpha Latzke & Helen, P. Hostetter. *The Wide World of Clothing*. New York:The Ronald Press Company, 1968.
4. Lois M. Gurel & Marianne S. Beeson.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A Book of Readings*. Iowa:Kendal /Hunt Publishing Company, 1975.
5.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6. Jeanette C. Lauer & Robert H. Lauer. *Fashion Power*. New Jersey:Prentice hall, Inc., 1981.
7. J. C. Flu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The Hogarth Press, 1950.
8. James Strachey.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t Freud Volume XI X(1923-25). *The Ego and Id and Other Works*. London:The Hogarth Press, 1961.
9.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Harry N. Abrams Inc., 1987.
10. Turner R. Wilcox. *The Mode in Costume*. New York:Charles Scribners Sons Inc., 1958.
11. Anderson J. Black & Madge Garland. London:Orbis Publishing, 1980.
12. W. K. Ferguson. 진원숙역. 「르네상스사론」. 서울:집문당, 1993.
13. Crane Brinton. 최명관, 박은구역. 「서양사상의 역사」. 서울:올유문화사, 1992.
14. 나종일편. 「봉건제」. 서울:까치, 1990.
15. Jacque Le Goff. 유희수역. 「서양중세문명」. 서울:문학과 지성, 1992.
16. Brian Tyarny, Sideny Painter. 이연규역. 「서양중세사」. 서울:집문당, 1991.
17. 임희환. “서양중세의 7대악덕과 사회적 변화”. 「중앙사론」, 제3집. 중앙대학교 사학 연구회, 1980.
18. Marc Bloch. 한정숙역. 「봉건사회 I」. 서울:한길사, 1986.
19. Marc Bloch. 한정숙역. 「봉건사회 II」. 서울:한길사, 1986.
20. Sidney Painter.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양중세사 연구실역. 「서양중세세계사」 서울:고려

대학교 출판부, 1993.

21. A. Hauser, 백낙청역, 「문화와 예술의 사회사-고대·중세편-」, 서울:창작과 비평사, 1976.
22. 矢部章彦, 「生活の中の衣服」, 東京:日本放送出版協會, 1985.
23. Blanche Payne,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역, 「복식의 역사」, 서울:까치, 1988.
24.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古代・中世編」, 東京:光生館, 昭和 53.
25. Doreen Yarwood, *English Costume*, London:B. T. Batsford, 1958.
26. マックス・フォン・ペーン, 永野藤夫, 井本响二譯, 「モードの生活文化史1」, 東京:河出書房新社, 1989.
27. Sidney A. Barrel, 임희완역, 「서양근대사에서 종교의 역할」, 서울:집문당, 1989.
28. Andre Moroa, 신용석역, 「영국사」, 서울:기린원, 1992.
29. 임희완, 「영국혁명의 수평과운동」,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33, 서울:민음사, 1988.
30. Daniel McGarry & James A. Wahl, 이석우역, 「서양중세사대요」, 서울:탐구당, 1987.